

한여름 물들일 감동의 선율...광주문화재단 7월 목요콘서트

광주문화재단이 마련한 '목요콘서트' 7월 무대가 색다른 조합과 폭넓은 장르로 관객을 만난다. 퓨전국악 무대부터 가야금병창과 한국무용 협연, 더블베이스 앙상블까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감각적인 공연들이 매주 목요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펼쳐진다.

3·10·17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장
퓨전국악·한국무용·더블베이스 무대 등



공연은 3일, 10일, 17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먼저 3일 열리는 공연은 '퓨전앙상블 불랑(BL ANC)'의 '오매 감동이어라!' 무대다. '화·로·애·락'정이 있는 5가지 매력 콘서트'를 주제로 전통 국악부터 오페라, 드라마 OST 등 다양한 장르의 퓨전국악 레퍼토리로 전 세대의 공감을 이룰 예정이다.

2016년 창단된 퓨전앙상블 불랑은 클래식과 국악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팀이다. 독창적인 해석과 융합적인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무대에는 소프라노 권효진, 가야금병창 박혜선, 일렉톤·피아노 정진영, 플루트 박수현, 국악 타악·앙금 임지영이 출연한다.
10일에는 더댄스컴퍼니의 '월하현무(月下絃舞)' 공연이 마련됐다. 가야금병창 이정아와 한국무용수 문다솜이 중심이 돼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전통예술의 새로운 감성을 표현한다.
더댄스컴퍼니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실험해왔다. 출연진으로는 무용수 박태영, 안미주, 신술찬, 김하나가 함께한다.
17일에는 '전남 프렌즈 베이스 앙상블'의 '더블베이스 이야기 #1'이 무대에 오른다. 클래식부터 영화음악, 대중가요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더블베이스 특유의 저음 매력을 들려준다.

'전남 프렌즈 베이스 앙상블'은 더블베이스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체로, 더블베이스의 음악적 가능성을 탐색하며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무대에는 권세록, 이정은, 염찬미, 최선의, 김라진, 박지성, 도의진, 최승우, 임수정, 김윤슬, 박효일, 손준만 등 12명의 연주자가 참여한다. 피아노는 한원희가 맡는다.
'목요콘서트'는 전석 유료이며, 1인당 입장료는 5천원이다. 공연 수익금은 전액 공연팀에 전

달된다. 또한 광주문화재단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전체 객석의 10% 이상(약 10석)을 광주 문화누리 이용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연 예매 및 관련 정보는 광주문화재단과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더마이광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빛고을시민문화관 (062-670-7942)으로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제31회 광주미술상에 이세현 작가 선정

1천만원 창작지원금·개인전 기회 제공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오건탁)는 2025년 제31회 광주미술상 수상자로 이세현(사진 왼쪽)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서류·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3배수 후보를 압축한 뒤 30일 작가별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세현 작가는 사진을 기반으로 근현대사의 흔적이 남은 장소를 기록하고, 그 안의 기억과 사건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잊혀진 일상과 장소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



이세현 작 '경계...5·18민주광장'

는지를 묻는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2월 예정된 개인전 준비를 위한 창작활동비, 도록제작비, 광고비, 전시 운영 인건비 등 총 1천만원 상당의 창작지원금이 제공되며 전시공간과 홍보, 작가와의 대화



등도 함께 지원된다. 수상자는 만 45세가 되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오건탁 이사장은 "청년 작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창작의지를 잃지 않도록 돕고자 한다"며 "지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로봇과 소년의 우정, 연극으로 만나다

광주시립극단 출장연극 시리즈
오는 16일까지 각 구 순회공연

광주시립극단이 출장 연극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로 창작극 '리보와 앤'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지난달 29일 동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광주 5개 자치구 공연장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찾아간다.
오는 4일 북구문화센터, 6일 남구문화예술회관, 11일 광산구 디자인진흥원, 16일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를 상상하며, 관계와 소통의 의미를 되짚는다.
연출은 광주시립극단 김지훈 연출가가 맡았다. 김 연출은 "수많은 정보가 축적되면 AI도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상상했다"며 "기억이 쌓이면 관계가 되듯, 감정을 가진 로봇과 친구가 되는 상상만으로도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보와 앤' 관람은 7세 이상 가능하며 러닝타임은 60분, 전석 지정석 5천원이다.
한편 광주시립극단의 '출장 연극 시리즈'는 시민 밀착형 공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첫 작품 '오스카와 장미할머니'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최명진 기자



국립광주박물관 '제36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내달 11일 개최...광주·전남 초등생 대상

국립광주박물관이 오는 8월11일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6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연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참가 대상은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생 또는 동일 연령대 청소년이며,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8월7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된 작품은 미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이 주어지며, 심사 결과는 10월1일 박물관 누리집에 발표된다. 입상작은 10월18일부터 12월7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로비에 전시된다.
최흥선 국립광주박물관장은 "그리기 대회는 단순한 미술 대회를 넘어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CBS
Media Group